

2024년 2-1

KIET 경제·산업동향

2024년 2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2023년 한·미 무역 및 주요 품목 수출 동향 [한국무역협회 (2024년 2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2023년 4분기 美 경제 3.3% 성장, 中 성장률 5.2% 기록

- 미국은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4분기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의 동반 증가세와 수출 증가 등으로 전기비 3.3%를 기록
- 일본은 11월 생산 감소와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일본은행(BOJ)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상향하고, 유로존 역시 11월 실물지표들의 부진 속에 역대 최대국인 독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 중국은 12월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4분기와 2023년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고, 인민은행이 기준율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발표
- 달러화는 1월중 美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2월 들어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美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강세가 지속
- 유가는 연초의 홍해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함께 이스라엘-하마스 협상 전개 양상과 미국 원유재고 증가세 및 美 달러화 강세 등으로 변동폭이 확대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12월 전산업생산 +0.3%

- 지난해 4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비 0.6%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3년 전체 성장률이 1.4%를 기록
 -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증가세가 큰 폭 둔화(전월비 0.6%)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증가(0.3%)에 그치면서 전월비 0.3% 증가

□ 금융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 및 가계대출 소폭 확대, 2월 초(2월 1일 ~ 13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하락

- 올해 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계절요인 등의 영향으로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증가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美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및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약보합세
-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中 위안화 약세, 홍해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 글로벌 달러화의 추가 상승세가 제한되면서 하락 전환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6.7%, 서비스업생산 +0.2%

- 제조업생산은 기계장비와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와 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6.7% 증가('23년 5월 이후 최대 폭)
 - 제조업ICT와 중공업은 생산 증가세가 확대, 경공업은 생산 감소폭이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점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2% 증가

□ 고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지난해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상당폭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약간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1.0% → 1.0%)

□ 수출입 : 1월 수출 +18.0%, 수입 -7.8%, 무역수지 3억 달러 흑자

- 올해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0% 증가한 547억 달러, 수입이 7.8% 감소한 544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3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반도체, 컴퓨터 등 ICT 다수 품목들과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장비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데다, 지역별로는 CIS를 제외하고 미국·중국·일본·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1. 해외경제

□ 미국 : 12월 실물지표 소폭 증가, 2023년 4분기 실질GDP 3.3% 성장

○ 지난해 12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반등과 선행지수 하락세 둔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고조. 4분기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의 동반 증가세 및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기비 3.3%를 기록

- 산업생산이 유틸리티(전월비 -1.0%) 부문의 감소에도 광업(0.9%)과 제조업(0.1%)의 동반 증가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0.1%)하고, 소매판매는 주유소(-1.3%) 판매 등 감소에도 자동차·부품(1.1%) 판매 등 증가로 확대(0.6%)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수주 감소에도 생산·고용 증가와 재고 감소 등에 힘입어 전월(46.7)보다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도 현재 평가지수(148.5)와 미래 기대지수(85.6)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5개월 만에 최고치
-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확대(11월 17만 개 → 12월 22만 개)되고, 경기선행지수는 추가 하락폭이 축소(11월 -0.5% → 12월 -0.1%)
-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소비(전기비 2.8%)와 투자(1.0%)의 동반 증가, 수출 증가(6.3%) 등에 힘입어 3.3%를 기록하고, 연간 전체 성장률은 2.5%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1.9	2.5	2.1 (2.4)	4.9 (2.9)	3.3 (3.1)				
산업생산 (IT생산)	3.4 (2.4)	0.2 (8.0)	0.2 (6.2)	0.5 (4.9)	-0.8 (4.3)	0.1 (1.2)	-0.8 (1.6)	0.0 (1.7)	0.1 (0.9)
내구재수주	8.3	4.5	5.4	-1.1	0.9	4.0	-5.1	5.4	0.0
소매판매	9.7	3.4	0.1	1.7	1.0	0.8	-0.3	0.3	0.6
소비자물가	8.0	4.1	0.7	0.9	0.7	0.4	0.0	0.1	0.3
실업률(%)	3.6	3.6	3.6	3.7	3.8	3.8	3.9	3.7	3.7
무역수지(10억US\$)	-951.2	-773.4	-202.2	-183.1	-188.0	-60.6	-63.9	-61.9	-62.2
ISM 제조업지수 ¹⁾	53.5	47.1	46.7	47.7	46.9	49.0	46.7	46.7	47.4
소비자신뢰지수 ²⁾	104.5	105.6	105.4	109.0	103.6	104.3	99.1	101.0	110.7
경기선행지수 ³⁾	115.1	106.3	106.9	105.4	103.3	104.7	103.7	103.2	103.1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1월 실물지표 혼조, 日銀(BOJ) 올해 경제성장률 1.2%로 상향

- 11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내수 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9개월 만에 하락하고,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 일본은행(BOJ)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임금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하향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1.2%로 상향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6	1.0	1.2	0.9	-0.7				
광공업생산	5.8	0.0	-1.8	1.4	-1.2	-0.7	0.5	1.3	-0.9
민간기계수주	6.0	5.5	2.6	-3.2	-1.8	-0.5	1.4	0.7	-4.9
소매판매	2.0	2.6	2.5	0.5	2.5	0.2	0.4	-1.7	1.1
소비자물가	-0.2	2.5	0.5	0.7	0.8	0.2	0.3	0.7	-0.1
실업률(%)	2.8	2.6	2.6	2.6	2.7	2.7	2.6	2.5	2.5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185	-1,779	-942	-943	65	-667	-780
경기선행지수 ¹⁾	114.3	112.0	108.3	108.8	109.1	109.5	109.3	108.9	107.7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12월 소비 둔화·수출 확대, 2023년 4분기 성장률 5.2%로 상승

- 12월 소비 둔화와 수출 확대 등 내·외수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디플레 우려가 부상.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높아지면서 연간 전체 성장률도 5.2%를 기록한 가운데 인민은행이 내수 부양을 위해서 기준을 인하와 장기유동성 공급을 단행(1.24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0	5.2	6.3	4.9	5.2				
산업생산	3.4	4.6	4.5	4.2	6.0	4.5	4.6	6.6	6.8
고정투자(누계기준)	5.1	3.0	3.8	3.1	3.0	3.1	2.9	2.9	3.0
소매판매	-0.8	7.8	11.4	4.2	8.4	5.5	7.6	10.1	7.4
소비자물가	2.0	0.2	0.1	-0.1	-0.2	0.0	-0.2	-0.5	-0.3
수출(달러화기준)	5.6	-4.6	-4.8	-9.9	-1.3	-6.8	-6.6	0.5	2.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11월 실물지표 부진, 역내 최대국 독일 '23년 마이너스 성장

- 11월 역내 실물지표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마이너스(-0.3%)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 증폭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9	3.4	0.0	0.2	-0.1				
산업생산	8.8	2.2	-1.6	-1.2	-1.4	0.4	-0.8	-0.7	-0.3
소매판매	5.1	0.9	-0.1	-0.1	-0.4	-0.8	0.0	0.4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8.0	6.2	5.0	5.2	4.3	2.9	2.4
무역수지(10억유로)	97.3	-342.8	-7.0	2.3	24.6	11.3	9.2	11.2	14.8
경제체감지수 ¹⁾	110.7	101.9	99.0	96.8	94.0	93.8	93.6	93.7	94.0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 유가 변동폭 확대

- 달러화는 1월중 미국의 견고한 소비와 인플레이 둔화에 따른 경기 연착륙 기대감 및 연준의 금리 동결과 매파적 입장 표명 등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2월 들어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美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강세 지속
- 유가는 연초에 홍해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한파 지속에 따른 원유 생산 차질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전개 양상과 미국 원유재고 증가세 및 美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변동폭이 확대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3								202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13일
엔/달러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48.20	141.04	146.92	150.80
달러/유로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888	1.1039	1.0818	1.0709
미 국채(10년만기)	3.64	3.84	3.96	4.11	4.57	4.93	4.33	3.88	3.91	4.31
WTI유	68.1	70.6	81.8	83.6	90.8	81.0	76.0	71.7	75.9	77.9
두바이유	72.1	76.1	85.6	87.2	92.9	86.7	84.3	76.5	81.2	82.7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12월 전산업생산 +0.3%

○ 지난해 4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비 0.6%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3년 전체 성장률이 1.4%를 기록

- 민간소비가 2분기 연속 증가(전기비 0.2%)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상당폭 감소(-4.2%)한 반면, 설비투자가 증가(3.0%)하고, 수출(2.6%)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순수출 규모가 확대(33조원 → 37조원)되면서 성장에 일조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GDP성장률	2.6*	1.4*	0.9* (0.6*)	1.4* (0.6*)	2.2*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1*	1.8*	1.6* (-0.1*)	0.2* (0.3*)	1.0*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0.9*	0.5*	4.7* (0.5*)	-4.2* (-2.2*)	-3.8* (3.0*)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2.8*	1.4*	1.7* (-0.8*)	3.8* (2.1*)	-1.6* (-4.2*)	-	-	-	-
전산업생산지수	4.6	0.7	-0.5 (0.3)	0.8 (1.1)	1.6* (0.2*)	2.7 (1.1)	0.8 (-1.8)	2.8* (0.8*)	1.1* (0.3*)
광공업생산지수	1.4	-3.8	-7.6 (3.1)	-2.0 (1.9)	4.2* (1.4*)	3.0 (1.8)	0.8 (-3.9)	5.5* (3.6*)	6.2* (0.6*)
제조업생산지수	1.4	-3.9	-7.8 (3.3)	-2.1 (1.8)	4.4* (1.6*)	3.0 (1.9)	0.8 (-3.9)	5.6* (3.6*)	6.7* (0.6*)
서비스업생산지수	6.7	2.9	2.3 (-0.3)	1.9 (0.7)	1.1* (-0.3*)	2.1 (0.5)	0.9 (-0.8)	2.3* (0.0*)	0.2* (0.3*)
소매판매액지수	-0.3	-1.4	-0.2 (-0.3)	-2.8 (-2.6)	-2.4* (-0.5*)	-2.0 (0.1)	-4.4 (-0.8)	-0.4* (0.9*)	-2.2* (-0.8*)
설비투자지수	3.3	-5.5	-1.2 (1.3)	-10.6 (-3.5)	-9.2* (3.1*)	-5.6 (8.7)	-10.1 (-3.8)	-11.9* (-2.5*)	-5.9* (5.5*)
건설기성(불변)	2.7	7.7	8.9 (-0.8)	10.5 (1.0)	1.3* (-2.0*)	11.3 (0.2)	3.5 (0.1)	2.2* (-3.3*)	-1.2* (-2.7*)
동행종합지수(2020=100)	108.2	109.8	110.2	110.0	110.1*	110.0	110.1*	110.2*	110.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9	99.5	100.2	99.4	98.8*	99.2	99.0*	98.9*	98.6*
선행종합지수(2020=100)	108.7	110.9	109.9	111.5	112.9*	111.9	112.4*	112.9*	113.4*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3	99.2	98.7	99.3	99.9*	99.4	99.7*	99.9*	100.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증가세가 큰 폭 둔화(전월비 0.6%) 되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증가(0.3%)에 그치면서 전월비 0.3% 증가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8.5%)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0.6%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운수·창고(2.5%) 등이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0.3%)
 - 소매판매는 내구재(전월비 -1.2%)와 비내구재(-0.7%), 준내구재(-0.3%) 판매의 동반 감소로 전월비 감소 전환(-0.8%)한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2%)의 감소에도 기계류(8.9%) 증가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5.5%)
 - 동행종합지수가 수입액과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상승한 반면에,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5개월 만에 하락(전월비 -0.1%)한 반면, 선행종합지수는 장단기금릿차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재고순환지표와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상승세(0.4%)

□ 물가 : 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2.8%

- 1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0.8%)을 제외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1.4%)를 비롯해 음식·숙박(0.2%),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전월비 0.4% 상승(전년동월비 3.2% → 2.8%)
- 12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대폭 상승(전월비 -2.7% → 4.9%)과 서비스 가격의 소폭 상승(0.0% → 0.2%), 공산품 가격의 하락폭 축소(-0.8% → -0.4%) 등으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전월비 0.1%, 전년동월비 1.2%)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5.1	3.6	3.3 (0.6)	3.1 (1.0)	3.4 (0.7)	3.4 (0.9)	3.7 (0.5)	3.8 (0.4)	3.3 (-0.5)	3.2 (0.0)	2.8 (0.4)
근원물가	4.1	4.0	4.3 (0.9)	3.7 (0.5)	3.3 (0.6)	3.7 (0.2)	3.7 (0.2)	3.5 (0.4)	3.2 (-0.1)	3.1 (0.2)	2.6 (0.3)
생산자물가	8.4	1.6	0.6 (-0.3)	0.7 (0.7)	0.2* (0.8*)	1.0 (0.9)	1.4 (0.5)	0.7 (-0.1)	0.6 (-0.4)	1.2* (0.1*)	-
근원물가	6.4	1.0	0.3 (0.1)	0.3 (0.1)	0.7* (0.2*)	0.5 (0.5)	0.8 (0.2)	0.7 (0.1)	0.6 (-0.3)	0.9 (0.1)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 및 가계대출 소폭 확대

- 올해 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계절요인에 기인하여 전월비 증가 전환하면서 전체 기준 역시 증가 전환
(2023년 12월 -5.9조원 → 2024년 1월 +6.7조원, 대기업 5.2조원, 중소기업 1.5조원)
 -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일시 상환된 대출이 재취급된 영향으로 인해 특히 운전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비 상당폭 증가
 - 중소기업 대출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월비 증가 전환
- 회사채는 연초 기관들의 높은 투자수요에다 기업들이 선차환 목적 등으로 발행을 늘리면서 전월보다 상당폭 순발행
(2023년 12월 +0.3조원 → 2024년 1월 +4.5조원)
- CP·단기사채도 우량물을 중심으로 상당 규모의 순발행
(2023년 12월 -4.6조원 → 2024년 1월 +6.6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
(2023년 12월 +0.6조원 → 2024년 1월 +0.3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1월말 잔액
	연중	1월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은행 원화대출	104.8	13.4	77.4	7.9	8.1	7.3	-5.9	6.7	1,254.4
(대 기 업)	37.6	4.2	31.9	6.6	4.3	1.5	-2.0	5.2	253.0
(중소기업)	67.2	9.2	45.5	1.3	3.8	5.8	-3.9	1.5	1,001.4
〈개인사업자〉	19.7	2.1	7.5	-0.9	0.5	0.9	-1.0	-0.7	449.6
■회사채 순발행	-5.9	2.3	-0.9	3.2	-2.3	-0.9	0.3	4.5	..
■CP 순발행	23.5	5.8	-1.0	6.9	2.5	-2.1	-4.6	6.6	62.0
■주식발행	21.7	13.0	11.0	1.5	0.6	3.4	0.6	0.3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 지난 1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줄어든 반면에,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
(2023년 12월 +3.1조원 → 2024년 1월 +3.4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12월 5.1조원 → 2024년 1월 4.9조원)
- 반면에 기타대출은 연초 상여금 유입 등의 영향에도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감소 규모가 축소
(2023년 12월 - 2.0조원 → 2024년 1월 - 1.5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1월말 잔액
	연중	1월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은행 가계대출	-2.6	-0.5	36.9	-4.7	6.7	5.4	3.1	3.4	1,098.4
■주택담보대출	20.0	2.2	51.6	0.0	5.7	5.7	5.1	4.9	855.3
■기타대출	-22.9	-2.6	-14.5	-4.6	1.0	-0.4	-2.0	-1.5	241.9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2월 초(2월 1일 ~ 13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연초 美 국채금리 상승과 홍해·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연준의 금리 동결 이후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약보합세
(2월 1일 3.267% → 2월 13일 3.353%, +0.09%p)
- 원/달러 환율은 1월중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중국 위안화 약세, 국내 증시 부진, 홍해·북한 정정 불안,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 상승세를 보인 이후, 글로벌 달러화의 추가 상승세가 제한되면서 하락 전환
(2월 1일 1,331.8원 → 2월 13일 1,328.1원, - 3.7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2024	
		3/4	4/4	1/4	2/4	3/4	12월	1월	2.13일
국고채(3년)	1.80	4.19	3.72	3.27	3.66	3.88	3.15	3.26	3.35
회사채(3년, AA-)	2.42	5.28	5.23	4.07	4.47	4.64	3.90	4.00	4.07
CD(91일)	1.29	3.24	3.98	3.59	3.75	3.83	3.83	3.68	3.67
CP(91일)	1.56	3.30	5.28	4.01	4.02	4.08	4.32	4.28	4.28
원/달러	1,188.8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288.0	1,334.6	1,328.1
원/100엔	1,030.2	993.3	953.2	981.4	907.0	901.3	912.7	901.9	888.8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2월중 전년동월비 +6.7%, 전월비 +0.6%

- 제조업생산이 의료정밀광학(-14.3%)과 기계장비(-7.0%), 전자부품(-8.8%), 섬유제품(-4.9)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53.3%)를 비롯해 1차금속(6.6%), 기타운송장비(0.4%) 등에서 증가하면서 6.7% 증가('23년 5월 이후 최대 폭)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35.6%)와 중공업(9.0%)에서 증가세가 2개월 연속 확대된 반면, 경공업(-7.0%)에서는 감소폭이 전월보다 더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 기타운송장비(-7.9%), 전자부품(-7.5%), 화학제품(-5.7%), 섬유제품(-1.9%)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8.5%)와 기계장비(6.1%), 자동차(4.7%), 1차금속(0.8%)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6%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3.5)는 전자부품과 식료품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 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2.7% 상승(3개월 연속 상승세)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7.7%로 전월 대비 8.6%p나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4분기중 재고 증가폭(8.3% → 0.4%,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축소된 반면, 출하가 전분기와 달리 증가(-1.9% → 4.5%)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8%로 2개월 만에 다시 하락

□ 서비스업생산 : 12월중 전년동월비 +0.2%, 전월비 +0.3%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3.7%)와 숙박·음식점(-2.2%) 등에서 감소한 반면에, 운수·창고(9.7%)와 정보통신(2.6%), 전문·과학·기술서비스(1.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8%)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0.2% 증가
- 전월비로도 도소매(0.0%)가 보합에 그친 가운데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8%)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1.4%), 숙박·음식점(-0.3%)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2.5%)에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함에 따라 0.3% 증가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4.7%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38.8%나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2	2023							
			연간*	2/4	3/4	4/4*	10월	11월*	12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9.7	105.5	104.6	106.2	111.6	106.6	112.7	115.4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3.8	-7.6	-2.0	4.2	0.8	5.5	6.2	0.6
제조업 (원지수)	9,569.5	109.9	105.6	105.2	106.5	111.8	107.3	113.1	115.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3.9	-7.8	-2.1	4.4	0.8	5.6	6.7	0.6
섬 유	113.4	-3.5	-7.1	-9.1	-6.9	-4.7	-6.0	-3.1	-4.9	-1.9
화 학	854.2	-9.9	-10.6	-16.1	-3.1	0.8	-0.5	3.2	-0.3	-5.7
철 강	496.6	-8.5	2.3	-2.6	3.4	18.6	26.7	18.0	11.8	1.5
반도체	2,023.8	7.6	-5.3	-18.6	4.7	35.6	13.0	42.8	53.3	8.5
컴퓨터, 주변장치	32.4	11.0	-12.5	-14.7	-17.2	-18.2	7.6	-26.6	-33.3	-5.4
통신, 방송장비	171.0	-5.1	-4.8	-12.6	-10.2	-11.8	-22.5	-5.3	-1.8	-34.7
의료, 정밀, 광학	217.2	6.6	-11.9	-13.9	-14.6	-14.3	-13.2	-15.2	-14.3	6.5
기계, 장비	737.3	1.1	-7.8	-6.5	-12.7	-11.8	-15.2	-14.2	-7.0	6.1
자동차	987.5	9.1	9.7	15.4	4.7	-0.3	2.5	-2.4	-0.8	4.7
조 선	66.0	20.7	7.2	4.6	9.3	-2.0	-4.1	3.2	-5.1	-8.9
- 중 공 업	-	1.5	-3.6	-7.7	-1.5	6.0	1.7	7.1	9.0	1.2
- 경 공 업	-	0.4	-6.2	-8.3	-5.8	-4.7	-4.2	-3.2	-7.0	-2.9
- 제조업ICT	-	2.2	-8.5	-19.1	-1.4	22.2	6.6	26.2	35.6	3.1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12.0	115.2	115.2	114.6	119.2	114.5	116.0	127.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6.7	2.9	2.3	1.9	1.1	0.9	2.3	0.2	0.3
도소매	193.9	2.7	-0.8	-1.1	-1.9	-2.9	-3.6	-1.5	-3.7	0.0
운수및창고	78.4	17.7	10.4	9.5	8.7	7.4	6.3	6.0	9.7	2.5
숙박및음식점	44.4	16.9	0.5	-2.7	-4.7	-3.7	-5.3	-3.4	-2.2	-0.3
정보통신	88.9	1.7	-1.4	-3.8	-1.8	1.4	-0.8	1.9	2.6	-0.8
금융및보험	167.4	8.4	5.6	7.1	4.7	0.8	2.1	3.9	-3.0	4.9
부동산	38.7	8.0	2.1	3.0	2.3	-0.7	-0.9	0.5	-1.8	-3.7
전문·과학및기술	95.8	2.0	2.4	2.6	2.5	2.6	2.9	3.8	1.5	-1.4
사업시설관리 등	53.6	5.2	3.7	3.5	3.4	2.6	3.3	4.0	0.8	-1.8
교 육	73.5	1.2	1.0	0.2	1.3	1.2	1.0	1.8	0.7	-0.9
보건및사회복지	111.3	7.2	4.6	3.5	5.1	4.1	5.6	4.2	2.6	-0.3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43.6	5.6	7.0	-2.0	2.0	1.5	5.8	-0.8	3.2
협회·수리및개인	24.0	4.4	6.5	5.4	5.5	3.1	5.0	6.6	-1.0	-5.8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4.7	-1.4	-1.6	-0.9	-3.6	-2.3	-2.1	-6.4	-4.5
- ICT서비스업	-	5.5	1.8	0.8	1.7	2.6	-0.1	2.4	4.7	38.8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5. 고 용

□ 취업자 수 : 12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지난해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상당폭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약간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1.0% → 1.0%)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0.2%)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0.1% → -2.0%)한 반면에,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소폭 확대(1.3% → 1.4%)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2022년 5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세(1.5% → 3.4%)를 보이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0.3% → 0.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부문은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3.0% → 3.5%)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2.1% → 3.0%), 정보통신업(5.4% → 8.8%)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6.8% → 3.5%)에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9% → -1.0%)도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증가율이 하락(1.2% → 0.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3%로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산 업	28,089	28,416	28,693	28,687	28,518	28,678	28,698	28,764	28,698	28,093
전년동기비	3.0	1.2	1.2	0.9	1.1	0.9	1.1	1.2	1.0	1.0
농림·어업	4.6	-0.8	-0.3	-1.3	-0.3	-1.1	-0.2	1.0	-0.1	-2.0
제 조 업	3.1	-0.9	-1.1	-1.3	-0.6	-1.5	-1.6	-1.7	-0.3	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9	1.7	1.8	1.5	1.5	1.6	1.7	1.8	1.3	1.4
건 설 업	1.6	-0.4	-2.4	-0.1	1.8	0.0	1.7	0.6	1.5	3.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8	1.4	1.8	1.0	0.6	0.9	0.9	1.1	0.3	0.3
전기·운수·통신·금융	3.9	1.8	1.3	1.2	3.4	1.0	2.0	3.6	3.1	3.4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9	2.3	2.8	2.2	1.3	2.4	2.0	1.8	1.2	0.8
실업률 (계절조정, %)	2.9	2.7	2.6	2.6	2.9	2.4	2.6	2.5	2.8	3.3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월 수출 18.0% 증가, 수입 7.8% 감소, 무역수지 3억 달러 흑자

○ 올해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0% 증가한 547억 달러, 수입이 7.8% 감소한 544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3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ICT 품목들과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장비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데다, 지역별로도 CIS를 제외하고 미국·중국·일본·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수입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상당폭 감소(-16.3%)하고, 非에너지 수입이 4.7%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감소세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2.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3.3%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도 9.6%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이 6.0% 증가한 약 74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 출	6,836 (6.1)	6,324 (-7.5)	1,558 (-12.0)	1,571 (-9.7)	1,682 (5.8)	547 (-4.4)	550 (4.9)	556 (7.4)	576 (5.0)	547 (18.0)
수 입	7,314 (18.9)	6,426 (-12.1)	1,593 (-13.2)	1,507 (-21.6)	1,586 (-10.7)	510 (-16.4)	534 (-9.7)	520 (-11.6)	532 (-10.8)	544 (-7.8)
무역수지	-478	-102	-35	64	96	37	16	36	45	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1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ICT(반도체·컴퓨터·가전)와 장비(자동차·선박·기계) 중심의 수출 증가세

○ 반도체 :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에 따른 수급 개선과 글로벌 IT 생산기지국(중국·홍콩 등)에 대한 수출 회복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월 기준 2017년 12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자동차** :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 확대, EU 내 친환경차와 소형 SUV 수출 호조 등 주요국 시장에서 국산차 판매 호조가 이어지는 등 수출 다각화 전략에 힘입어 수출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자동차부품** : 친환경차 수요에 따른 내연차 부품 수요 둔화에도 미국 현지 공장 내 생산모델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재차 증가
- **선박류** : 2021년도의 선가 상승분이 반영된 수출 단가와 고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LNG선) 중심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LCD 생산 감축과 재고조정이 계속되고 있으나, TV 등 고부가가치 주력 품목에 대한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고가형 완제품 판매 비중 확대와 고부가가치 부품 탑재로 인한 평균 단가 상승에도 최근 중국 내 아이폰 수요 부진에 따른 부품 수출 감소 여파로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
- **철강** : 中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로 인한 원자재 및 단가 상승과 판매류 수출 물량 증가 등으로 수출이 4개월 만에 증가
- **섬유** : 주요 시장(미국·중국)에서의 의복 판매 증가와 소싱 오더 회복에 따른 편직물 등 주력 소재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재차 증가
- **석유제품** : 나프타·LPG 등 산업용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수출물량 확대로 인한 단가 하락 상쇄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 **석유화학** : 글로벌 시장 내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에도 인도 등지의 건설·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요 확대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
- **일반기계** : 일부 수출시장(중국·EU)에서 신규 주문이 감소한 영향에도, 미국·아세안 등지의 생산 및 설비투자에 따른 공작기계 등 관련 수요 지속과 중동 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에 힘입어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글로벌 가전 시장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 내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가전 수요 확대와 생성형 AI 등 혁신기술 탑재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낸드 공급업체들의 감산 영향에 따른 SSD 가격의 상승과 글로벌 PC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022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자동차	16.4	31.1	48.9	17.1	19.7	9.4	19.7	21.5	17.9	24.8
자동차부품	2.4	-1.5	1.0	0.4	-3.7	-3.5	-3.8	3.8	-10.8	10.8
선박류	-20.9	20.1	21.6	-5.1	59.0	14.4	101.8	31.6	47.2	76.0
일반기계	2.0	4.6	5.6	6.7	8.6	9.9	10.3	13.8	2.1	14.5
철강	5.7	-8.5	-5.7	-5.5	-5.9	7.3	-0.9	-11.1	-5.2	2.0
석유화학	-1.4	-15.9	-24.3	-13.8	2.1	-5.0	-3.1	6.0	3.8	4.0
석유제품	64.9	-17.2	-34.8	-27.4	1.8	-6.5	16.2	-6.1	-3.7	11.8
섬유	-4.0	-11.2	-11.2	-11.8	-6.2	-8.5	-9.0	0.8	-10.0	8.5
가전	-7.4	-1.0	-7.6	7.0	7.5	7.3	5.7	14.1	2.9	14.2
무선통신기기	-10.4	-10.2	-20.8	-8.4	0.4	-3.6	-4.5	8.3	-3.0	-14.2
컴퓨터	-4.7	-53.3	-61.6	-48.1	-31.7	-53.9	-30.6	-29.4	-34.5	37.2
반도체	1.0	-23.7	-34.8	-22.6	10.4	-13.6	-3.1	12.9	21.7	56.2
디스플레이	-1.1	-12.1	-16.5	1.2	10.8	4.0	15.5	5.9	10.9	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2023년 한·미 무역 및 주요 품목 수출 동향
-----------	-----------------------------------

한국무역협회(2024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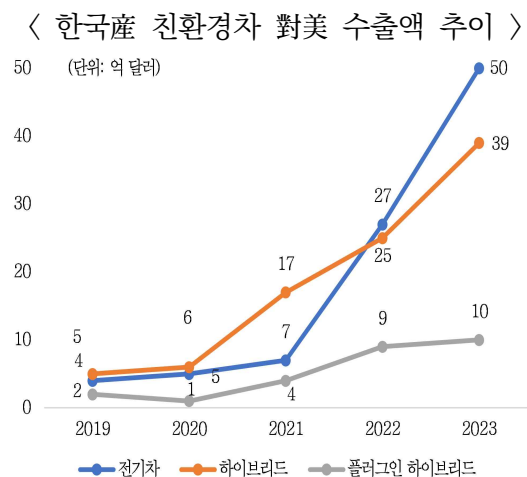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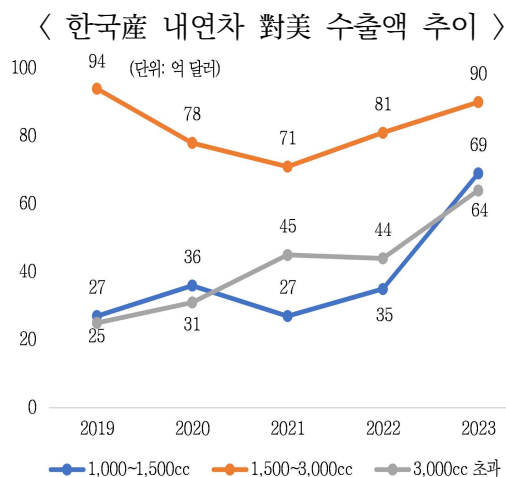
- 지난 2023년 한·미간 상품무역액이 1,869억 달러, 한국의 對美 무역수지액이 445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 2023년 한국의 對美 수출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1,157억 달러, 對美 수입액은 전년보다 12.9% 감소한 712억 달러를 기록하고, 한국은 미국의 8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에 자리(2023.11월 기준)

□ 한국의 對美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 전기차, 2차전지, 첨단전지 소재, 기계류 등 친환경·안보 관련 품목들이 수출 호조세를 견인하고, 특히 스마트폰의 수출 금액이 증가세로 전환
 - 미국 내 제조업 설비투자 호황으로 각종 기계류 품목의 수출이 큰 폭 증가
- 對美 수입 상위 10대 품목에서 터보제트·의약품 제외한 모든 품목 수입 감소
 - 천연가스, 반도체 장비, 쇠고기 등의 순서로 크게 감소

□ 분야별 수출 호조 품목 (1) - 내연기관 및 전기 자동차

- 2023년 자동차 품목의 對美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322억 달러를 기록
 - (내연차) 소형차(1,000~1,500cc) 수출이 69억 달러(전년대비 96.1%), 대형차(3,000cc 초과) 수출이 64억 달러(43.2%)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친환경차) 전기차(50억 달러, 83.9%)와 하이브리드차(39억 달러, 55.0%) 수출이 크게 증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10억 달러, 3.1%) 수출은 소폭 증가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주: 1,000~1,500cc(HS8703.22), 1,500~3,000cc (HS8703.23), 3,000cc초과(HS8703.24).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주: 하이브리드차(HS8703.4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HS8703.60), 전기차(HS8703.80).

- 미국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입시장 내 한국產 승용차의 점유율은 전년보다 하락(전기차 23.5%(전년비 -1.3%p), 하이브리드차 21.4%(전년비 -5.0%p))한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점유율은 소폭 상승(13.3%, 전년비 6.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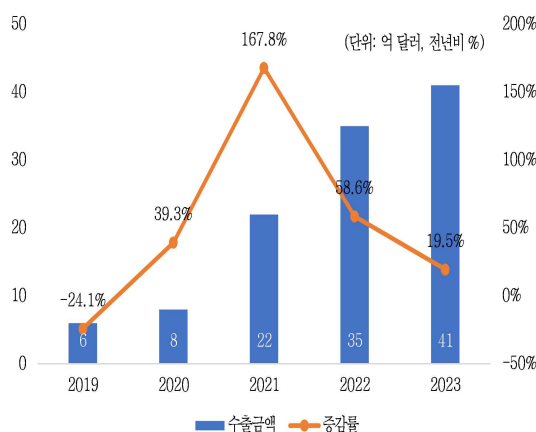
□ 분야별 수출 호조 품목 (2) - 배터리 및 관련 소재 품목

- 미국 내 친환경 자동차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한국產 배터리 품목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2023년중 전년대비 16.8% 증가한 48억 달러를 기록
 -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對美 수출액이 전년대비 19.5% 증가한 41억 달러
- 미국의 배터리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2위의 점유율(2023.1~11월 기준)을 차지 하나, 중국產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일본·멕시코產 비중이 소폭 하락
 - 미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8.4%로 2위 차지
-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산화금속산염·과산화금속산염의 對美 수출액이 2023년에 18억 달러 규모에 달하여 전년대비 35.5%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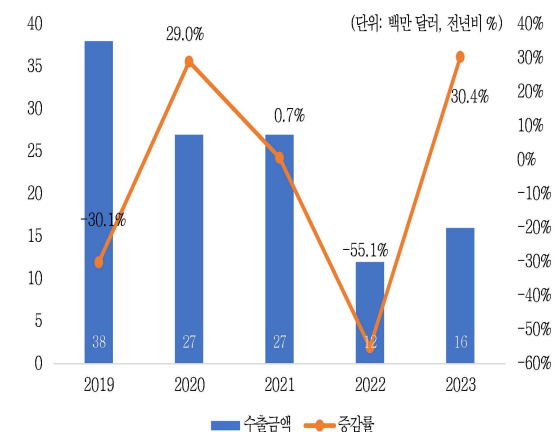
□ 분야별 수출 호조 품목 (3) - 휴대폰 및 부품

- 2017년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여온 한국產 휴대폰 및 부품의 對美 수출액은 2023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
 - 2017~22년 휴대폰 및 부품(HS8517)의 對美 수출액 평균 감소율은 23.7%를 기록한 반면에, 2023년에는 전년대비 30.4% 증가한 16억 달러를 기록
 - 특히 스마트폰의 對美 수출액이 전년대비 무려 97.7%나 증가, 이는 2022년 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집중된 생산비중(50% 이상)을 축소해 데 기인

〈 리튬이온 배터리 對美 수출 및 증감률 〉 〈 휴대폰 및 부품 對美 수출 및 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주: 리튬이온배터리(HS8507.6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주: 휴대폰 및 부품(HS8517).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2.12일)	(2.13일)	(2.14일)	(2.15일)	(2.16일)
	 1월 소비자물가	 12월 산업생산  23.4분기 실질GDP (수정치)	 23.4분기 실질GDP (잠정치)  12월 산업생산(수)  12월 소매판매(수)  12월 수출입통계  1월 산업생산  1월 소매판매	 1월 생산자물가  1월 고용동향
(2.19일)	(2.20일)	(2.21일)	(2.22일)	(2.23일)
 12월 기계수주	 2월 소비자동향조사	 1월 무역수지(잠)  1월 경기선행지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월 생산자물가	 1월 소비자물가(수)	
(2.26일)	(2.27일)	(2.28일)	(2.29일)	(3.1일)
	 1월 소비자물가  2월 소비자물가지수  1월 내구재수주(잠)  금융통화위원회	 1월 무역수지(수)  12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2월 경제체감지수  23.4분기 실질GDP (수정치)	 1월 산업생산(잠)  1월 소매판매(잠)  1월 개인소비	 1월 실업률  2월 소비자물가(예)  1월 실업률  2월 ISM 제조업지수  2월 수출입통계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1월 산업활동동향	 2월 ISM 서비스업지수	 1월 소매판매  2월 소비자물가	 1~2월 수출입통계  1월 무역수지	 1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23.4분기 실질GDP (확정치)  2월 고용보고서